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15

JCCT 2021-11-3

이스라엘군 여성인력의 활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Utilization of Female Personnel in the Israeli Forces

홍명숙*, 유선영**, 이선정***, 김인찬****, 조상근*****, 박상혁*****

Myung Sook Hong*, Sun Young Yu**, Seon Jeong Lee***, In Chan Kim****,
Sang Keun Cho*****, Sang-Hyuk Park*****

요약 지난,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시작 14일 만에 이스라엘군 (Israeli Defense Forces, IDF)의 전승으로 양측간의 휴전이 조인되었다. 이처럼 IDF가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IDF 내 여성 인력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IDF에서 여성 인력은 33%에 달하고, 여성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남성 인력과 융합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IDF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미래 도전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이스라엘, 이스라엘군, 여성, 인력, 강점

Abstract In May 2021, a major conflict broke ou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Fourteen days after the conflict began, a ceasefire between the two sides was signed with the victory of Defense Forces (IDF). One of the reasons why IDF was able to lead the dispute to victory with the minimum damage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is that the female workforce in IDF turned on. also, there are currently 33% of the female workforce in IDF, and various tasks are carried out in the field by convergence with male workforce. So, in this study, the examples experienced by IDF will provide clues to overcoming the future challenge of Korea's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Key words : Israel, Israeli Defense Forces, Female, labor force, Strength

1. 서론

지난, 5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분쟁이 발생했다. 하마스(Hamas)는 차폐지역이 즐비한 가자지구(Gaza Strip)에서 이스라엘

의 주요 도시를 향해 대량의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스라엘군(Israeli Defense Forces, IDF)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고도 대공방어체계인 아이언 돔(Iron Dome)을 가동하였다. 그 결과, 하마스의 로켓들은 90% 이상 요격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제1저자)

**정회원, 강점경영연구소 소장 (공동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정보화 담당 (공동저자)

****정회원, 육군 제3군단사령부 (공동저자)

*****정회원,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원 (공동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2021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30일

Received: August 4, 2021 / Revised: August 25, 2021

Accepted: August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Military Science, WooSuk Univ, Korea

되었고, 관련 영상은 SNS를 통해 실시간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분쟁은 국제사회의 중재로 양측이 휴전에 조인함으로써 5월 21일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분쟁의 결과는 이전과는 판이했다. IDF는 하마스가 발사한 3,150발 이상의 로켓 중 90%를 요격하여 불과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년 분쟁에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급감한 수치다. 반면, 하마스의 피해는 상당했다. 하마스의 군사시설 1,500여 곳 이상이 파괴되고, 핵심 조직원 200명 이상이 사상되었다. 이로 인해, 하마스는 조기에 전력이 소진되어 기존처럼 장기간 분쟁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IDF가 효율적인 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생후살타(我生後殺打)’ 개념의 ‘다차원전투(Multi-Dimensional Battle, MDB)’를 구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생후살타’는 “아군을 보호한 후 적을 공격한다.”는 의미이고, ‘MDB’는 지상 뿐만 아니라, 공중, 해상, 사이버·전자기, 우주 영역을 활용하는 일종의 다영역 작전이다.

IDF가 이와 같은 작전수행 개념을 구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이언 돔 포대와 대변인 부대(Spokesmen’s Unit)의 역할이 컸다. 전자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주변에 배치되어 저고도 로켓을 요격하는 부대로 이번 분쟁에서 ‘아생후살타’의 개념을 구현했다. 후자는 일종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 부대로 각종 SNS를 활용하여 하마스를 기만하고, 그 위치를 노출시켜 IDF 공·지·해(Multi-Dimension) 자산이 정밀타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실제로 대변인 부대는 “지상군과 공군이 동시에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게시했다. 하마스는 이것을 IDF의 지상작전으로 인식하고 곧바로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그 결과, 지하시설에 은·엄폐되어 있던 하마스의 병력과 장비는 가자지구 곳곳에 배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IDF는 정찰위성, UAV, 드론 등을 운용하여 이들의 거점과 지하터널 출입구를 식별한 후, 곧바로 다영역 자산을 활용하여 정밀타격하였다.

아이언 돔 포대와 대변인 부대에는 병력구조(Personnel Structure)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여성 인력의 편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아이언 돔 포대의 경우 30% 이상이 여성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들은 이번 분쟁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IDF 여성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

치되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IDF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면서 단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전으로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IDF의 여성 인력 활용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DF의 여성 인력 활용정책과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 국방 병력구조 설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소요를 도출하고자 한다[1].

II. IDF 여성 인력 활용정책

기존에는 유대주의(Zionism)에 따라 유대인 남성인면서 유대교 신자일 경우에만 IDF의 주류세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타민족, 타종교, 여성, 성 소수자 등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급기야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계의 반발이 거셌으며 여성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복무(남성3년, 여성2년)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IDF는 여성의 복무를 특정 직위에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처: IDF

그림 1. 대변인 부대에 소속된 요원

Figure 1. An Agent of IDF Spokesperson’s Unit

이스라엘 여성 인권단체(IWN, Israel Women Network)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여 관련 법이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IDF의 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는 1995년 대법원에 여성을 특정 직위(공군 조종사)에 배

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전역 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제대군인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0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IDF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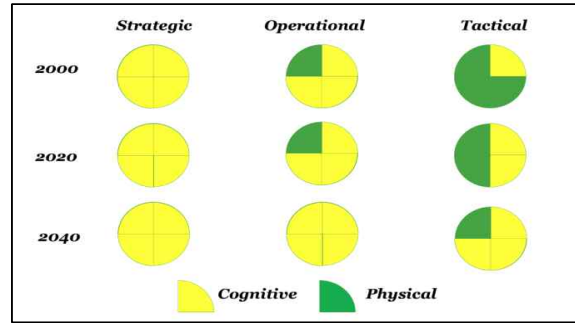
그림 2. 아이언돔 운용요원과 인터뷰하는 IDF 대변인
 Figure 2. IDF Spokesman Interviewing with Iron Dome Operator

그 결과, 2000년 각 군 참모총장 예하에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참모 직위가 신설되었으며 여성계의 노력으로 2005년 435명에 불과했던 여성 전투원은 2017년 2,70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경보병과 포병을 비롯한 사이버전(Cyber Warfare), 정보(Intelligence), 대공방어(Anti-aircraft)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현재는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IDF 중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달하고 있다[2].

이처럼 여성의 입대가 증가하자 IDF는 여성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IDF는 미래전 양상을 연구하여 여성 인력 활용 분야를 탐색하여 자체 연구결과, 2020년 전술적 수준의 분야에서 전투원은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동등하게 요구되었다(인지 50% : 신체 50%). 반면, 2040년에는 신체적 능력보다는 인지적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인지 75% : 신체 25%). 이것은 미래 전장으로 갈수록 신체적 능력보다는 인지적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술한 연구내용은 IDF의 병력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폐활량, 피로골절 유발율, 체지방률, 근력 등 낮은 신체적 능력으로 전투병과보다는 전투지원이나 전투근무지원병과에 한정되었던 여성인력을 전투부대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강점 중 하나인 섬세함을 발휘할 수 있는 정찰감시, 사이버·전자전, 인지전 부대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AI, IoT, Cloud, Big-data, Mobile)은 이와 같은 경향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BillingD, FordyGR, FriedlKE, et al.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technology on military human performance research priorities. J Sci Med Sports 2020. in review.

그림 3. 현재 및 미래전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요구 비율 변화양상

Figure 3. Cognitive and physical components of current and predicted future warfighters

III. IDF 남녀 혼성부대 운용 사례 분석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IDF는 2000년부터 남성과 여성 인력을 혼합한 남녀 혼성부대(Integrated Unit)를 전술적, 작전적 및 전략적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임무 성격에 따라 여성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 인력 단독으로 구성된 부대도 운용하고 있다.

우선, 전술적 수준의 남녀 혼성부대로는 2000년 초반에 창설된 'Caracal Battalion'이 있다. 이 부대는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지역에서 근접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IDF 최초의 'Equal Unit'이다. 여기서 'Equal'은 남녀 동일한 체력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전투장비를 착용한다는 의미다[3].

IDF는 이러한 'Equal Unit'을 위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4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병훈련(Basic Training)에 적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적용 결과 신병훈련 종료 후, 남성과 여성의 신체 능력 차이가 적게 나타났고, 전투부대 배치 후, 여성인력의 피로골절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도 급감하였다[4].

다음으로, 작전적 수준의 부대로는 아이언 돔 부대가 있다. 아이언 돔은 IDF 다층방어체계(Air-Defense)의 일부로 이스라엘 전역에 10여개의 포대를 운영하고 있다. 포대는 3~4개의 고정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발



출처: IDF Twitter

그림 4. 카라칼 대대의 남녀군
Figure 4. Men and Women of Caracal Battalion

사대는 저고도 탐지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20발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2월 8일, 최초로 여성 장교가 아이언돔 포대장으로 부임했고, 현재는 포대장 중 30%가 여성이며 방공 병과 지휘관 중 60%가 여성이다. 이는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 부상률이 낮고, 임무 수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 차이가 없으며, 일-가정 양립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언돔 포대의 여성 인력 편성률이 높고, 이번 분쟁 중,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한 포대도 10여 명의 포대원 중 50%에 육박하는 5명이 여성 인력이다[5].

더 나아가 타 작전부대로는 가자지구 감시 자산 운영 중대가 있다. 이 부대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지상 레이더, 드론, 센서 등 공·지 감시자산을 운용하여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하마스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이한 점은 중대장을 포함하여 중대 전원이 여성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감시정찰 임무에 여성의 강점인 섬세함과 집중력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6].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6Un7XD8PnY>

그림 5. 아이언돔 포대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
Figure 5. Netanyahu at Lod Iron Dome missile defence system

마지막으로, 전략적 수준의 부대로는 전술한 인지전을 수행하는 대변인 부대(Spokesperson's Unit)가 있다. 이 부대 역시 작전보안 차원에서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대변인 부대 요원들은 전투현장을 방문하여 상대의 저항의지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투실시간 SNS에 공유한다. 지난 분쟁에서는 대변인 부대 소속 여성 전문인력인 리비 웨이스(Libby Wis) 대위가 인디아 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이에 대응하는 IDF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대변인 부대에는 전략적 의사소통, 콘텐츠 발굴, 촬영 및 제작 등을 담당하는 여성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전은 상대, 국민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이로 인해, 상대의 감정과 인식 변화를 실시간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번 분쟁과 관련하여 대변인 부대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피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고속도로 배수로에 숨은 어느 아버지의 영상을 IDF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그 영상에는 하마스 로켓공격이 비윤리적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마스의 공격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외 거주 여성이 아이언돔 포대에서 임무수행하는 영상과 F-16 정밀타격간 목표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이 발견되자 임무를 취소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했다. 전자는 하마스의 공격에 전 세계 유대인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IDF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피력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7].

IV. 결 론

우리 사회가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함으로 인해 가용 병력자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는 안보 차원에서 난제(Challenge)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여성 인력 활용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IDF의 여성인력 활용정책과 활용 사례는 우리 군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미래전쟁 양상 연구를 통해 여성 인력 활용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DF는 미래 전투원은 신체적 능력보다는 인지적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였다. 우리 군도 한반도의 미래 전쟁 양상을 예측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한다면, 여성 인력을 병력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 인력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점 기반의 보직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IDF는 전술한 것처럼 여성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차분함과 집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지구 감시정찰, 관찰통제관(Havat Hashomer), 신병훈련소 면접관 등에 여성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7]. 우리 군도 IDF처럼 감시정찰, 사이버·전자전, 인지전 등 여성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여 여성 인력을 보직한다면 미래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남성과 여성 인력의 신체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체력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병역 가용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IDF 'Equal Unit'가 가장 현실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도 IDF의 'Equal Unit'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인 체력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역 가용자원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ifferences in Physical Fitness of Male and Female Recruits in Gender-Integrated Army Basic Training",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Vol.40(11), pp. 654-659, 2008.

[5] Ricardo Tarrasch, Orit Lurie, Ran Yanovich and Dan Moran,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integration of women into combat ro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0(2), pp. 305-309, 2011.

[6] Army Headquarters Policy Office, *Israel Study* 2017.

[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165&cid=60344&categoryId=60344>

References

[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49754&memberNo=37671914>

[2] Meytal Eran-Jona and Carmit Padan, "Women's Combat Service in the IDF: The Stalled Revolution", *Strategic Assessment*, Vol.20(40), pp. 95-107, 2018.

[3] Pnina Sharvit Baruch, "What is the Appropriate Model for Female Service in the ID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Vol.156, pp. 77-92, 2016.

[4] Ran Yanovich, Rachel Evans, Eran Israeli, Naama, Constantini, Nurit Sharvit, Drorit Merkel, Yoram Epstein and Daniel S. Moran,